

금융위원장 모두말씀

2017. 2. 13(월)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<인사말>

□ 반갑습니다.

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

□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
여러 자산운용사, 투자자문사, 민간연구소
대표 여러분을 비롯하여

○ 산업은행 회장, 예탁결제원 사장, 증권금융 사장 및
금융권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○ 특히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
이해관계기관간 다양한 요구를
원만히 조정하여
한국판 “스튜어드십 코드”
즉, 「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」을
제정하는데 주역을 담당하신
기업지배구조원 조명현 원장님을 비롯한
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
꼭 드리고 싶습니다.

□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것은
지난해 말입니다.

- 2010년 영국이 코드를 처음 도입한 이후로 현재까지
네덜란드·캐나다·스위스·이탈리아를 비롯해
아시아 국가로서는 일본, 말레이시아, 홍콩, 대만 등
총 10여개국에 도입·운용중에 있습니다.
- 자본시장의 규모나 성숙도를 감안한다면
우리 시장이 오히려 늦은 것은 아닌가
하는 생각이 듭니다.

□ 오늘은
코드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검토중인
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
유관기관들과 함께

-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착·확산되기 위해서는
어떤 노력을 기울이고,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
논의해 보고자 합니다.
- 기탄없는 의견제시와 토론을 기대합니다.

<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>

□ 여러분,

2011년 이후부터 정채되어 있는
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탈피하고,
명실상부한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

3가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
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- 첫째,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
거래소의 구조개편이 필요합니다.

거래소 내 각 기관이 시장운영을 책임지고
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야

자회사는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상장 추진 등
제 각각의 시장 특성에 맞는 성장·발전을 위해 .
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고

지주회사는 국제적·전략적 제휴 등에 집중하는 등
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- 둘째, 공모펀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.

일반 투자자가
공모펀드를 신뢰하지 않거나, 외면하게 되면
우리 주식시장의 미래는 보장하기 어렵습니다.

지난해 성과보수 도입 등
공모펀드 활성화를 도모한 것도
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,
공모펀드 투자의 매력을 높여
시중자본이 자본시장, 주식시장으로
흐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
- 셋째,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되어야 합니다.

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지고,
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게 되면
주식·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게 되고,
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한편,
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
해외 투자자들의 인식도 제고될 것입니다.

- 일본의 경우, 2014년 2월 도입 이후
4개월만에 127개 기관투자자가 코드에 가입했으며,
16년말 기준으로 총 214개의 기관투자자가
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
-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대응해
일본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,
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에 따라
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는 등

일본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키는데
큰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.

- 현대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
주주와 경영진간의 이해관계를
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
충실한 자산관리자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구체화된 행동지침으로
정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.

- ❶ 기관투자자 측면에서 보면
고객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
될 것입니다

- 기관투자자가
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
고객인 최종 투자자의 이익을
적극 반영하는 장치를 만들고
그 결과를 고객에게 충실히 설명한다면

- 고객은
본인의 자산이
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
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
- ② 기업 측면에서 보면
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계기를
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
- 영국에서 처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계기도
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
주주, 특히 기관투자자 주주의 무관심 속에서
금융기관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관리를
견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성 때문이었던 만큼
- 기업과 기관투자자간
소통과 대화가 활성화되면

기업은 지배구조나
경영전략 또는 관리방식 등을
효율적·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되고
경영 전 분야에 잠재한 위험요소들도
보다 잘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.

- ③ 자본시장 측면에서도
기관투자자들이
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,
중장기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가
자리잡게 되어
- 우리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
높아지게 될 것입니다.
- 외환위기 이후
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
“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”을
제정한 데 이어
- 투자자 측면에서
“스튜어드십 코드”가 완성됨으로써
- 투자자 보호,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
쌍두마차로서
시장을 통한 자율적 규율기반이
구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

<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부사항>

□ “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*”는

*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

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.

- 갓 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우리 자본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려면
-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업계, 관계기관이 혼연일체(渾然一體)가 되어서 코드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기업지배구조원은

코드 이행지원 및 조사·연구 기관으로서

기관투자자들이 원활한 수탁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명서, 가이드라인 등을 적시에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행점검을 충실히 하는 등 초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□ 금투협회와 생보협회에서는

회원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

정보제공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스튜어드십 코드는

“Comply or Explain(원칙준수, 예외설명)”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여부와 적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,

- 각 기관투자자가 개별상황과 역량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방식을 채택해 나간다면 점차 우리 기업·투자문화에 맞는 주주권 행사 관행이 형성될 것입니다.

□ 무엇보다, 코드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

○ 기업과 원활하게 대화하고

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과 결과들이

다른 기관투자자에게는

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

-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
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지막으로 금융당국도
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이행에
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
- 금융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
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
필요한 법령해석을 적시에 제공하고,

원활한 주주활동에 필요한
개선점이나 지원사항을
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
-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 등 자산 보유자들이
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
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의
중장기 수익추구성향을 감안하여
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<맺음말>

- 기업들의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
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이
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,

○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
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시대적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여
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
노력해주고 계신
기관투자자 및 유관기관 여러분들께
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.
- 코드에 참여하는 선도기관들의 경우
시장의 기대와 주시를 받게될 것이고
코드의 취지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간다면
시장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식되는
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
- 감사합니다.